



# 꿈 꾸는 자 행복하라

# 꿈너머꿈 꾸는 자 위대하라



강사: 고도원 (아침편지 문화재단 이사장)  
 주최: 송파구청  
 일시: 1월 24일  
 장소: 송파구청 대강당

## 고도원의 아침편지 '꿈너머꿈'

누구나 허공처럼 크고 걸림 없는 자유인을 꿈꾼다. '일체 유위법은 꿈 · 환상 · 물거품 · 그림자와 같고, 이슬 · 번개와 같이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하라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는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자유인이란 존재의 덧없음을 바로 보는 사람이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 를 받아 본 적이 있는가. 현재 189만명 지인들에게 매

일 아침 편지를 띄우는 성실한 남자가 있다. 이미 꿈 하나를 완성한 행복한 사람. 그는 현재 '꿈너머꿈'을 한창 진행 중이다. 세계 최고 ·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실현을 위한 명상센터 '깊은 산속 웅달샘'이 고도원이 현재 꾸고 있는 '꿈너머꿈'이다. 고도원이 서울 송파구청 직원들 앞에 섰다.

강연회를 기획한 이진우 팀장(송파구청 능력개발팀)은 "새해 첫 번째 직원 소양교육으로 고도원님을 초청했다. 강연회를 통해 저마다 가슴에 꿈너머꿈을 하나씩 지녀보자"는 취지를 밝혔다. 진솔하면서도 푸른 아량과 열정이 담긴 고도원의 강연 현장 속에서 우리도 꿈너머꿈을 그려 보자. 언젠가는 우리도 '고·도원(Go桃園)' 하리라.

### #내 인생의 책과 만나라

우리 이렇게 만났습니다. 인생을 만남이라고 하지요. 가장 중요한 만남은 역시 좋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얼굴이 찡그리고 하지도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은 좋은 책과 만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 어떤 책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적어도 내 인생에 몇 권의 책이 있어야 합니다. '한권의 책을 읽는 사람을 두 권의 책을 읽는 사람이 지배한다'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말을 화두로 진행하려 합니다.

### #꿈을 갖고 기본기에 충실하라

<백만장자의 정신(millionaire mind)>이란 책을 쓴 미국 작가 토머스 스탠리(Thomas J. Stanley)는 미국 백만장자들의 두 가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꿈'입니다. 그들은 내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꿈이 뭘까요? 소망, 희망,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의 것. 꿈은 북극성과 같은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꿈보다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바로 '기본기'입니다. 꿈을 거대한 미래의 것이고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기는 두 걸음씩 할 수 없는 소박한 결속의 현재입니다. 이 시대의 백만장자는 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화를 아는 사람이 진짜 백만장자입니다. 꿈이 없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기본기가 없으면 오늘조차 없습니다. 저는 물질의 부자보다 마음의 부자를 지향합니다. 제가 최근에 <꿈너머꿈>이란 책을 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본기 그리고 이뤄질 수 없을지라도 북극성이 되는 꿈 너머꿈이 그 핵심입니다.

### - 2001년 8월 1일 고도원의 첫 번째 아침편지 -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

-루신(魯迅)의 <고향> 중에서-

그렇습니다.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희망은 있다 믿으면 있고, 없다 믿으면 없습니다.

### #절망의 바닥에서 우뚝 서자

2001년 8월 1일은 '고도원의 아침편지'가 처음 시작된 날입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일하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문 기고문을 써주는 1급 비서관이었습니다. 글쟁이로는 최고 관직이죠. 그러나 당시 제 몸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5년 동안 단 사흘 휴가를 받았습다. 청와대 마라톤 모임을 만들어 탄천 둔지를 달렸습다. 육체는 회복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머리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터지기 직전의 머리에 바늘 구멍을 하나 냈습니다. 그것이 '고도원의 아침편지'입니다. 청와대 비서관이었다고 하면 다들 제가 출세 가도의 비단길을 달린 것으로 압니다. 제게도 10년 동안 절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신 헌법이 공포된 1972년, <연세춘추> 학생기자였던 저는 강제 징집 당해 군생활을 했고, 전역 후에는 운동권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이력서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사랑에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호구지책으로 포장마차를 차렸습다. 다들 언론



방구를 차렸습다. 아현동 고개에 행복의 문이란 간판을 걸고 웨딩드레스 장사를 5년 했습다. 돈도 벌고 희망이 생기는 듯 했는데 아내가 두 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저는 글쟁이로서 글을 쓰고 싶다는 간절함 뿐이었습니다. 그 때 생겨난 것이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신문부에 의해 강제 폐간될 때까지 5년여를 혼신의 힘을 기울여 일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혼신의 힘을 기울일 때는 누군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귀인을 만나는 행운의 기회가 제게도 왔습다. 중앙일보에서 "이런 글쟁이가 지금 없고 있다. 이 사람을 신문기자를 시키면 신문이 달리질 수 있겠다" 싶었는지 기사를 시켰습다. 제가 사회부 기자 4년을 하는 동안 별명이 '특종기자'였습다. 이어 정치부 기자가 됐습다. 정치 전문 기자 생활 중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습다.

이분 인생의 책이 뭘지 아시나요?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의 <역사의 연구>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이미 열다섯 번 읽었습니다. 왜? 그 책은 제 인생의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라. 그래야 아가 튼튼해진다.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면 아가 상한다. 정신도 그렇다."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지만 아버지가 주신 책을 읽으며 밑줄을 그었습니다. 지금 그 책은 제 서재에 보물처럼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던 길을 잠시 멈추게 하는 절망의 시간. 그때 '아침편지'는 준비했습니다.

### # '아침편지'의 탄생 그리고 아버지의 지혜로운 씨앗

저는 시골교과 목사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세상 소풍을 마치고 엄청난 양의 책을 물려줬습다. 제게 절망의 시간이 있을 때 아버님이 물려주신 책을

펼쳐 봤습다. 그 곳에서 밑줄 하나를 발견하고 전율을 느꼈습다. 당신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가 살아있을 때 무심코 그어 놓은 밑줄에서 살아있는 숨결 · 땀방울이 튀어나왔습다. 그것이 루신의 <고향>에서 썼은 희망이란 구절입니다. 첫 번째 '아침편지'가 됐지요. 제 인생 최고 멘토가 된 이 글귀는 아버지가 남긴 씨앗입니다. 독서 후 남긴 씨앗 하나. 아들로 하여금 인터넷 세상에 '고도원의 아침편지'를 시작하게 한 필연의 씨앗이 됐습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글쟁이 아닌 꿈쟁이입니다. 제게 남은 꿈이 하나 있습니다. '깊은 산속 웅달샘'이란 이름의 명상센터입니다. 제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누구도 "자네 명상이란 것을 한 번 해보게"라고 말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기도와 묵상에 익숙한 개신교인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티냇한 스님의 플럼 빌리지와 인도 오로 빌 마을을 다녀온 저는 심한 충격에 빠졌고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은 바로 현실이 됩니다. 깊은 산속에 명상센터 '깊은 산속 웅달샘'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상센터에 대한민국 어느 깊은 산속에 짓고 있습니다. 20년을 목표로 두뼘뼘 갑니다. 어려우면 제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북극성이 아닌 징검다리에서 꿈을 이뤘다고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꿈이 이뤄진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꿈너머꿈을 지니십시오. 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지만 꿈너머꿈을 지니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십시오. 저마다 꿈 보따리를 다시 열어 그 너머의 꿈너머꿈을 생각하는 그런 오늘이 되십시오.

기연숙 객원기자 omllower@daum.net

## 사찰공양실 고급수저 공장도가 시판!

불자용 명품수저 DANI 공장도가 Set 당 1,000원씩 공급

■무자년 새해선물!!

**사찰공양실 보시로 품격!! 불자가정 새해 선물로 최고!!**

국내주방용품 생산메이커인 (주)신도스텐에서 사찰 공양실과 불자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큰호응을 얻고 있다. 명품브랜드인 DANI 로 국내주방용품을 석권하고 있는 신도스텐 대표 최성욱은 사찰에 갈때마다 공양실에서 나오는 수저가 일반식당에서 나오는 저품격 수저와 같아 사찰공양실이 아닌 세사식당에서 먹는것과같은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명품DANI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공장도 가격에 공급한다고 했다. 명품수저 "다니"는 일반수저와 달리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의료기 만드는 최고급 스텐레스로 제작되었으며 수저 손잡이 상단에는 막힘없는 불사 성공과 불자들의 건강장수를 위해 "반장"을 넣고 수

저중간에는 사찰과 불자가정의 비상을 기원하는 뜻에서 "학2마리"가 비상을 하며 손잡이 하단에는 공양하는 불자들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게 육자대명왕 진언 "옴"자를 넣어 고급스럽고 품격있게 제작되어 있다. 명품:다니"일반수저는 백화점에서 Set에 3,500원씩 판매되고 있으나 사찰과 불자가정은 보시하는 마음으로 1,000원씩 공급하고 있어 사찰공양실과 불자가정의 뜻깊은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있다. 명품수저DANI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20Set 선물용 20,000원과,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게 50Set 50,000원, 100Set 100,000원 등 3가지로 포장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02)741-4477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 평생부자지갑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무자년 소원 성취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가족 친지에게 새해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새해 소원성취의 선물!**

2008년 쥐띠 무자년은 12지신중 첫번째로 앞으로 12년을 새로이 시작하는 첫해다. 재운이 없는 지갑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이 시작할 시점이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사사는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달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의 신통한 중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액난도 다 소멸되게 영험을 발하게 하는 의식인 점안식까지 마친지갑이다. 또한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어려웠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부동산이 쉽게 팔리고 생각지도 않던 좋은 일들이 만들어 지는등 영험의 지갑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령"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현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  
 신용카드불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 2008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 막아!!

다쳐올 화를 미리 쫓는 삼고금강저

2007년에 드는 삼재 2008년 목은삼재 2009년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역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살아야 하므로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세가 있으므로 위협하지 말고 일을벌리면 남배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다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다쳐올 화를 미리 쫓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 세상 각종 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 금강저는 안병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순금니로 제작하여 가방 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가 끝나는 2009년 말일 삼고금강저를 기도한 후 후속에서 물으면 삼재는 모두 끝난다. 삼재소멸 불공을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드립니다. 가격:35,000원 (가로5cm폭2cm)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